

전남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로 판로 걱정 'NO'

'호남권 친환경 물류센터' 지역 특화 농산물 재배단지 육성 나주·영암·장성·구례 농협 대과 등 8개 품목·48개 농가와 협약

전국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친환경 농가들이 안정된 판로를 가질 전망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이하 호남권 센터)는 올해 전남 48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특화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를 육성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측은 지난 7-8일 이들 간 여수에서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주 남평농협, 영암 남주농협, 장성 황룡농협, 구례농협 등 지역 친환경 농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본부는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사업'과 연계해 총 면적 224만㎡(67만7000평)에 달하는 '지역 특화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들 4개 농협은 지난 달 호남권 센터와 출하계약 계약을 맺고 올해부터 8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시작한다.

남평농협 15곳(대과 농가 8곳·피망 4곳·감자 3곳), 남주농협 12곳(메론 2곳·고구마 10곳), 황룡농협 13곳(딸기 12곳·포도 1곳), 구례농협 수박 8곳 등 48개 농가가 센터와 협약을 맺었다. 센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부터 계약재배를 시작한 뒤 점차 전체 지역으로 대상으로 상시 출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호남권 센터의 친환경 농산물 취급 비율은 99.1%에 달한다.

이들 농협은 전남본부로부터 주요 품목 계약재배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받고 사업비로 총 1억6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 농가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농산물 소비·수급 동향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호남권 센터는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물의 마케팅과 책임 판매를 맡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상품화 및 산지조직화 전략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경기 친환경 물류센터 운영사례 소개 ▲호남권 친환경센터와 친환경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지역특화 친환경 농산물 단지화는 소규모 다품목 생산체계인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

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인 우리 전남의 친환경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총 사업비 278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0월 나주시 산포면에 문을 열었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3644㎡(4127평) 규모이며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교육관 등을 갖췄다. 호남농산물물류센터와 '풍요로' '로컬팜' '이연유기' '나주시로컬푸드' '삼원친환경영농법인' 등 6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다.

호남권 센터의 올해 7월 기준 거래실적은 54억5000만원으로, 목표 달성률은 52.1%를 기록했다. 학교급식 거래 실적은 23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1%늘었지만 공공급식 부문에서는 6500만원을 거래하며 전년보다 46.7% 줄었다. 대외 판매 부문에서는 이윤식 제조업체(주)창당은 3억원 등 30억3000만원을 거래하며 거래액이 지난해 대비 109.8%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도교육청 농촌·교육발전 업무협약

고흥 등 초교에 원격화상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올해부터 고흥·완도·보성지역 초등학교에 원격 화상교육을 펼친다.

전남본부는 지난 8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농업·농촌 및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전남지역 3개 초교에 원격화상교육 시스템을 설치하고 코딩수업, 독서 토론 학습 등을 진행한다. 수업은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이 맡을 예정이다. 2008년 창단된 고려대 사회봉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곳곳에서 교육캠프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지역 청소년에게는 '스쿨팜 생태교육' 등을 펼치며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행복채움 금융교실'도 함께 진행한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비중을 확대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전남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전남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농협 전남본부는 '모두가 소중환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가을 제철 농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8~10일 사흘 간 광산구 신가동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1층에서 '가을걷이 전남농협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사과·단감·봄동배추 등 가을 제철 농산물을 20% 저렴하게 판매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나주 '세지농협 멜론공선출하회' 우수 생산자 조직

농협 전남본부 선정

나주 세지농협 멜론공선출하회가 농협 전남지역본부 '2019년 상반기 우수 생산자 조직'으로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세지농협 멜론공선출하회가 지난 6일 우수 생산자 조직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74개 농가가 활동하고 있는 세지농협 멜론

공선출하회는 올 상반기 87억91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 물량은 11.6% 증가한 1752t을 기록했고, 매출은 21.2% 증가했다.

출하회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회원재배 기술 교육과 자체 품질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전남본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선별, 출하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종합

심사 평가했다. 우수 생산자 조직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천 조직 가운데 ▲공동계산 실적 류별 상위 30% 이내 ▲최소급액 5억원 이상 ▲농협 취급수수료율 2% 이상 ▲유실직 회원 10명 이상 ▲전년대비 물량 및 금액 성장을 실현한 조직이 해당한다.

전남본부는 각 산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산자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트럼프 美中관세 합의 부인에도 무역협상 낙관
코스피, IT·제약바이오주 강세에 2150선 유지
반도체 등 IT관련주·배당 높은 금융주 등 관심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면서 선제적 통화완화국면은 마무리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선을 그으며 패배적 입장을 보였지만 금리인상 조건으로 상당한 인플레이션 확인을 제시하면서 당분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미·중 무역협상 합의 일정이 연기되기 되긴 했지만 중국 상무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상호 부과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미국 측에서도 일부 인사가 이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나 중국은 내가 그대 주길 바라고 있다", "중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한다"고 말하며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당초 '미니달'로 예상되던 무역 협상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2월 15일 예고됐던 추가관세부와 유예여부가 협상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스몰캡 이후 2-3차 협상에서 중국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1차 무역협상에서 관세철폐까지 최대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고자 하고 있다. 갈등은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국내여건을 본다면 협상의 판을 뒤집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지난 금요일 미국 3대지수는 증가지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도 10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와 제약바이오주 강세로 박스권 상단인 2100선에 돌파하고 후 지난 주 장중 2150선을 넘어선 후 2137pt로 마감했다. 디램(DRAM·대용량 임시기억장치)은 지난 3분기를 시작으로 주요 고객들의 수요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공급업체들의 보유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DRAM에 이어 'NAND' 부문도 협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달 간 원달러 환율은 브렉시트 영향으로 급등한 영국 파운드와 다음으로 강세폭이 크다. 지난 8월 1220원을 넘었던 환율은 지난 주말 1157원선까지 하락했다. 단기 급등에 따라 속도조절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강세흐름이 이어지며 1150원선에서 안정을 예상하고 있어 미·중 무역분쟁으로 지난해부터 국내증시에서 이탈이 컸던 외국인 순매수 강화를 기대하며 외국인동향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반기 신라전 3상 무용성 평가, 에이치엘비 임상3상 목표치달성 실패발표, 헬릭스미스 임상3상 혼용논란으로 제약·바이오에 실망과 우려가 컸지만 에이치엘비가 유럽중앙학회(ESMO)에서 임상 3상 성공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스닥지수도 바이오업종 상승으로 660선을 회복했다. 지난 주 필자는 코스닥지수가 11월~4월까지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11월 미국심장학회에 이어 2020년 1월12일 JP모건 헬스케어컨퍼런스, 2월6일 면역항암학회, 3월20일 피부학회, 3월28일 심장학회·내분비학회, 4월15일 폐암학회·간학회, 4월24일 암학회 등 중요학회가 이어지는 시기로 임상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1월 초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실적 영향이 중소형가 많은 코스닥기업에 크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미·중 무역합의 진전에 따라 지수 변동이 나타나고 코스피지수는 2150선을 중심으로 한단계 높아진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컸던 화학 등 소재주, 반도체 등 IT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시중금리상승과 장단기 금리차를 고려한다면 실적 기대감과 배당성향이 높은 금융주에도 관심이 좋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